

! 수도

퇴폐업소단

서울시 사기저

89.2.28

서울시는 오는 3월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던 구·동 직원-경찰 합동 야간퇴폐업소 단속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고, 대신 상설 위생감시반 활동과 불시 심야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.

2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 달가량 경찰과 합동으로 일과후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야간퇴폐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구·동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'예고된 단속'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, 23개의 상설 위생감시반을 편성·운영하고 불시 심야단속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.

이와 함께 서울시는 27일 최근 경찰과 퇴폐업소간의 내통관계가 검찰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각 구청의 위생공무원들이 유사한 비리사실이 있는지 내사하는 한편 위생공무원들의 일제 순환인사를 곧 실시키로 했다.